

최근들어 지하수관련 제도가 그 용도와 부처의 필요성에 따라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먹는물관리법(환경부)이 우여곡절 끝에 1995.1.5 제정되었고, 온천법(내무부)은 1995. 12. 30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지하수법(건설교통부)의 개정안이 1996년말 국회를 통과하여 1997.7월경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될 예정이다. 이와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지하수관련 법들의 제정과 개정을 둘러싸고 각 부처간, 각 학회간, 각 학문집단간 주도권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수문학, 수자원공학, 상하수도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환경학 등 실로 많은 분야의 학문에서 지하수를 다루고 있고, 각 분야마다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지하수 분야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필자는 지하수가 수문학, 수자원공학에서만 다루어야 할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언급한 세개의 지하수관련 법의 제정, 개정, 시행에 있어 우리 학회가 그동안 기울인 노력이 어떠했는지는 뒤돌아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특히 다음에서 소개되는 한국자원공학회의 특별심포지움은 우리 학회에 타산지석이 되리라 감히 생각한다.

한국자원공학회가 "개정된 지하수법과 지하수 영향조사를 중심으로"란 부제목이 붙여진 '지하수 자원의 개발, 보전,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1997년 5월 9일 서울대학교 박물관 강당에서 지하수관련 20개 회사가 찬조하고 208명이 참석한 대규모 특별심포지움

일반기사

'한국자원공학회' 지하수관련 특별심포지움 소개

박창근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특별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은 지하수정책 및 관계법, 지하수 현황, 지하수 영향조사, 지하수 모델이란 4개의 대주제로 분류되었고, 각 대주제에 속해있는 발표논문과 발표자는 다음 표 1과 같다.

지하수법이 1996년말 전면 개정이 되었고, 지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1997년 7월경 개정될 예정인 현시점에서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자원공학회가 선정한 주제와 발표논문의 내용은 시기적으로 매우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이러한 특별심포지움의 개최로 인하여 개정된 지하수법은 보다 많은 전문가에게 상세히 소개되었고, 또한 지하법의

중요성이 널리 홍보되었다. 본 심포지움의 특기사항으로는 종합토론시 일반참석자들과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의 지하수 책임자들간에 지하수법과 지하수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깊은 토론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은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지하수법에 의한 실효성있는 지하수관련 정책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될 뿐만 아니라 수행될 지하수관련 정책은 보다 전문성을 띠게되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지하수관련 제도가 과도기적 단계에서 안정된 단계로의 진입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한국자원공학회가 성황리에 개최한 지하수관련 특별심포지움을 지상을 통해 간략히 소개하면서 필자는 한편으로는 지하수가 점점 그 학문적 영역을 독자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가는 점에 대하여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는 반면, 또 한편으로 무엇이랴 꼭 꼬집어 표현할 수 없는 상념에 잠긴다. 필자가 알고 있는 우리

표 1. 발표논문 및 발표자

발 표 논 문	발 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정책 및 관계법 ① 지하수 수질보전의 현재와 장래 ② 개정된 지하수법의 정신과 개요 	김동욱, 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유영창,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현황 ③ 우리나라 지하수의 개발현황과 전망 ④ 서울시의 지하수 기본조사 ⑤ 제주도의 지하수개발 현황 	박홍용,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개발처장 한규언, 농어촌진흥공사 지하수개발처 실장 진성원,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개발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영향조사 ⑥ 암반지하수자원을 위한 물리탐사 ⑦ 지하수 수량의 평가 ⑧ 지하수 수질의 평가 ⑨ 지하수 오염평가 및 정화기술 	정승환, 한국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강장신, 동서엔지니어링(주) 사장 김형석,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우진, 수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모델링 ⑩ 수리지질학적 지하수 모델링 ⑪ 우리나라 심부지하수의 수리지구화학적 특성 	이강근,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이종운, 서울대학교 자원공학과

나라 지하수관련 학회로는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자원공학회, 대한지하수환경학회, 한국지하수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암반공학회, 대한지질학회 등 실로 엄청난 수의 학회가 현재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 지하수법의 효율적인 시행에 일조하기 위해 또는 지하수의 학문적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어느 학회에서도 지하수관련 심포지움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수법의 주무부서가 건설교통부 수자원심의관실(수자원정책과)이고, 어느 학회보다 수자원심의관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학회가 한국수자

원학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하수법의 실효성있는 시행에 일조함과 동시에 한국수자원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학회에서 지하수법과 지하수관련 정책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하수 관련 제반제도가 현재 급격한 과도기를 겪으면서 점차 안정된 형태로 정착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하수와 전혀 무관하지 않는 우리 학회는 학회차원에서 지하수와 관련하여 나름대로의 'action'을 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본고를 마치면서 우리 학회에 대한 필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1997년 7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중앙정부차원의 지하수법은 그 제도적 완성을 보게된다. 그 법이 어떻게 제정되고 개정되었던지간에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지하수법은 우리나라의 개발 및 이용, 보전 및 관리에 엄청난 위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우리학회차원에서 지하수법관련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지하수법의 실용성있는 시행에 우리 학회가 일조할 수 있고, 또한 지하수에 대한 우리 학회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